



대입 지원전략 설명회 ‘집중’

10일 오후 광주시교육청 교육정보원에서 열린 ‘201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결과 분석 및 정시지원전략 설명회’에 참석한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각 대학의 모집요강을 유심히 살펴보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한빛원전 인근 목장 생산 우유·솔잎·토양 등 매년 방사성물질 검출

기준치 이하라지만...주민들은 찜찜하다

법원 “기준치 이하도 암 발병 사유” 고리원전 판결 주목

영광 주민 32명 등 갑상선암 피해자 285명도 소송 제기

‘기준치 이하로 방사성 물질이 검출되면 안전한 것인가.’

한빛(영광)원전 인근 목장이 생산하는 우유를 비롯, 원전 주변 솔잎, 토양, 해수, 빗물에서 핵 분열시 생성되는 방사성 물질이 ‘기준치 이하’로 검출되는 사례가 매년 반복되면서 안전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원전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발병한 갑상선암의 경우 원전 책임’이라는 판결 이후 정부가 설정한 ‘기준’이 적절한지에 대한 우려도 학계를 중심으로 제기되는 형편이다.

◇매년 한빛원전 인근에서 ‘기준치 이하’ 검출= 10일 한빛원전 민간환경안전감시센터(감시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한빛원전 인근 목장에서 생산한 우유와 원전 주변에서 채취한 솔잎, 갯벌, 바닷물, 토양, 빗물 등에서 핵 분열시 생성되는 인공 방사성 물질인 스트론튬(Gr-90), 세슘(137), 삼중수소 등이 검출됐다.

검출된 방사성 물질과 농도는 ▲우유 스트론튬-90, 0.00874~0.0636Bq/kg ▲솔잎 스트론튬-90, 0.462~0.762Bq/kg ▲갯벌 스트론튬-90, 0.0916~0.671Bq/kg·세

슘-137 0.629~1.46Bq/kg ▲바닷물 스트론튬-90, 0.152~1.76mBq/kg·세슘-137 0.000806~0.00178Bq/kg·삼중수소 0.714~88.9Bq/ℓ ▲토양 스트론튬-90 0.146~1.02Bq/kg·세슘-137 0.454~3.63Bq/kg ▲빗물 삼중수소 0.669~62.0Bq/ℓ 등이다. 물론, 정부가 정한 ‘기준’에는 못 미치는 수준이다.

지난 2012년에도 영광 쌀에서 스트론튬-90이 검출(0.0407~0.0809Bq/kg)됐다. 우유, 솔잎, 갯벌, 토양, 빗물, 해수에서도 세슘-137과 스트론튬-90, 삼중수소 등이 검출됐다. 영광에서는 2011년 식수에서 삼중수소가 최대 6.53Bq/ℓ까지 검출되기도 했다.

국내 방사능 관리 기준은 방사성 세슘과 요오드만 규정돼 있는데 ▲세슘-134+세슘-137 100Bq/kg(ℓ·임시 강화기준) ▲요오드-131 100~300Bq/kg이다. 국내 기준이 없는 경우, 국제 식품규격위원회의 기준(스트론튬-90 100Bq/kg·ℓ 등)을 따른다.

◇법원 “기준치 이하도 암 발병 사유”=통상 학계에서는 방사능 검출량이 기준치 이하인 경우 ‘안전하다’와 ‘건강에 영향

을 미친다’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섰다.

하지만 최근 ‘주민 갑상선암 발병은 원전 책임’이라는 법원 판결 이후 기준치 이하라도 안전하지 않다는 쪽으로 무게 중심이 옮겨가는 분위기도 전해진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민사 2부(재판장 최호식)는 이모(48)씨 부자와 아내 박모(48)씨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갑상선 암에 걸린) 박씨에게 위자료 1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박씨가족은 2012년 7월 “고리원전 때문에 가족 3명이 암과 장개가 걸렸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갑상선암 발생에는 방사선 노출이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점 ▲법에서 정한 연간 유효 선량(0.25mSV~1mSV)을 지켰더라도 인체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는 점 ▲다른 암과 달리 갑상선 암의 경우 원전과의 거리와 발병률 사이 상관관계가 있다고 조사된 점 ▲박씨는 고리 원자력발전소로부터 10km 떨어진 곳에서 20년간 방사선 방사선에 장기간 노출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춰 원전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 판결이 기록제가 되면서 환경단체 등을 중심으로 기준치가 과연 제대로 설정

된 것인지, 기준치 이하의 방사선(내지 방사성 물질)은 정말 안전한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방사선량이 고선량이면 저선량이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피폭량에 비례해 커지고, 외부 피폭에 비해 내부 피폭이 위험성이 크다는 주장 등에 대해서는 국제방사선 방호위원회에서 제기된 바 있다.

한 원자력전문가(방사능화학 박사)는 “원자력발전소가 어떤 형태론든 주민과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면서도 “전세계 400여 기의 원전, 과거 핵실험, 핵잠수함 운항 과정에서 배출된 방사성 물질이 지구를 순환하고 있는데 과연 한수원이 전체를 책임져야 하는가 정도는 한번쯤 고민해볼 부분”이라고 말했다.

스트론튬과 삼중수소, 세슘 등 방사성 물질은 칼슘이나 칼륨, 물과 화학적 특성이 유사한 탓에 인체가 오인, 배나 골수, 혈액에 축적되고 체내에서도 지속적으로 방사선을 방출, 인체에 악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방사선은 방사성 물질에서 나오는 입자나 전자기파로, 내부 피폭은 체내에 섭취된 방사성 물질에 의한 피폭(被曝)을 말한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옷깃이 가른 판결

검찰 “노란색 반팔 셔츠, 선거운동원 옷과 동일”

법원 “옷깃없어 동일하지 않다”...4명 무죄 선고

옷깃이 ‘없음’ 노란색 반팔 셔츠와 옷깃이 ‘있음’ 같은 색깔의 반팔 셔츠를 ‘같은’ 옷으로 볼 수 있을까.

검찰은 ‘동일한’ 옷으로 봤지만 법원 판단은 달랐다.

광주지법 형사 12부(부장판사 마옥현)는 10일 담양군수 선거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Y후보 선거운동원들과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옷을 입고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Y 후보 선거사무소 총괄책임자 김모(57)씨, 선거사무원 김모(여·56)씨, 선거운동 자원봉사자 김모(여·48)씨 등 4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자원봉사자 김씨 등 2명은 지난 5월 26일 오전 담양군 무정면 마을 등에서 선거운동원들과 ‘같은’ 노란색 반팔

셔츠를 선거사무원 등에게 전달받아 착용하고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 운동기간 중 어깨띠,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옷, 표찰·수기·마스코트·소품 등을 착용할 수 있는 범위를 후보자, 배우자, 선거 사무장·연락소장·사무원,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활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 등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재판부는 김씨 등이 입은 옷은 옷깃이 없는 반팔 셔츠로, 선거운동원들이 입었던 옷깃이 ‘있음’ 긴팔·반팔 셔츠와 모양이 ‘동일하지 않다’고 판단, “범죄의 증거가 없다”며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

혁신도시 공사 방해 건설노조원 3명 구속

집행부 구속 양심 경찰서 불 지르려한 조합원은 영장

조합원 권익 보호를 내세워 건설현장에서 집회 등 실력행사를 해온 건설노조 소속 간부들이 구속됐다. 소속 간부들 구속에 양심을 품고 경찰서에 불을 지르려다 붙잡힌 조합원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건설노조가 나주 혁신도시 및 유니버시아드 양궁장 건설 현장 등을 돌며 소속 조합원 채용 등 노동자 권익 보호를 명분을 집회를 벌여왔다는 점에서 향후 활동에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나주경찰은 나주시 혁신도시 건설 현장에서 공사를 방해한 혐의로 입건된 건설노조 광주전남 지부장 박모(40)씨 등 3명을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법원은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씨 등은 지난 10월 14일 단체 협약에서 배출된 방사성 물질이 지구를 순환하고 있는데 과연 한수원이 전체를 책임져야 하는가 정도는 한번쯤 고민해볼 부분”이라고 말했다.

스트론튬과 삼중수소, 세슘 등 방사성 물질은 칼슘이나 칼륨, 물과 화학적 특성이 유사한 탓에 인체가 오인, 배나 골수, 혈액에 축적되고 체내에서도 지속적으로 방사선을 방출, 인체에 악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방사선은 방사성 물질에서 나오는 입자나 전자기파로, 내부 피폭은 체내에 섭취된 방사성 물질에 의한 피폭(被曝)을 말한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방사선량은 고선량이면 저선량이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피폭량에 비례해 커지고, 외부 피폭에 비해 내부 피폭이 위험성이 크다는 주장 등에 대해서는 국제방사선 방호위원회에서 제기된 바 있다.

한 원자력전문가(방사능화학 박사)는 “원자력발전소가 어떤 형태론든 주민과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면서도 “전세계 400여 기의 원전, 과거 핵실험, 핵잠수함 운항 과정에서 배출된 방사성 물질이 지구를 순환하고 있는데 과연 한수원이 전체를 책임져야 하는가 정도는 한번쯤 고민해볼 부분”이라고 말했다.

스트론튬과 삼중수소, 세슘 등 방사성 물질은 칼슘이나 칼륨, 물과 화학적 특성이 유사한 탓에 인체가 오인, 배나 골수, 혈액에 축적되고 체내에서도 지속적으로 방사선을 방출, 인체에 악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방사선은 방사성 물질에서 나오는 입자나 전자기파로, 내부 피폭은 체내에 섭취된 방사성 물질에 의한 피폭(被曝)을 말한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방사선량은 고선량이면 저선량이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피폭량에 비례해 커지고, 외부 피폭에 비해 내부 피폭이 위험성이 크다는 주장 등에 대해서는 국제방사선 방호위원회에서 제기된 바 있다.

한 원자력전문가(방사능화학 박사)는 “원자력발전소가 어떤 형태론든 주민과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면서도 “전세계 400여 기의 원전, 과거 핵실험, 핵잠수함 운항 과정에서 배출된 방사성 물질이 지구를 순환하고 있는데 과연 한수원이 전체를 책임져야 하는가 정도는 한번쯤 고민해볼 부분”이라고 말했다.

스트론튬과 삼중수소, 세슘 등 방사성 물질은 칼슘이나 칼륨, 물과 화학적 특성이 유사한 탓에 인체가 오인, 배나 골수, 혈액에 축적되고 체내에서도 지속적으로 방사선을 방출, 인체에 악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방사선은 방사성 물질에서 나오는 입자나 전자기파로, 내부 피폭은 체내에 섭취된 방사성 물질에 의한 피폭(被曝)을 말한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방사선량은 고선량이면 저선량이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피폭량에 비례해 커지고, 외부 피폭에 비해 내부 피폭이 위험성이 크다는 주장 등에 대해서는 국제방사선 방호위원회에서 제기된 바 있다.

한 원자력전문가(방사능화학 박사)는 “원자력발전소가 어떤 형태론든 주민과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면서도 “전세계 400여 기의 원전, 과거 핵실험, 핵잠수함 운항 과정에서 배출된 방사성 물질이 지구를 순환하고 있는데 과연 한수원이 전체를 책임져야 하는가 정도는 한번쯤 고민해볼 부분”이라고 말했다.

스트론튬과 삼중수소, 세슘 등 방사성 물질은 칼슘이나 칼륨, 물과 화학적 특성이 유사한 탓에 인체가 오인, 배나 골수, 혈액에 축적되고 체내에서도 지속적으로 방사선을 방출, 인체에 악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방사선은 방사성 물질에서 나오는 입자나 전자기파로, 내부 피폭은 체내에 섭취된 방사성 물질에 의한 피폭(被曝)을 말한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서 집회를 열다 공사장에 진입, 작업중인 노동자를 밀치는 등 공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광주서부경찰은 이날 박씨 등 노조 간부 구속에 양심을 품고 경찰서를 찾아 불을 지르려 한 혐의(공용건조물 방해 예비)로 양모(5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양씨는 지난 9일 밤 9시30분께 건설노조 간부들이 구속된 광주 서부경찰서를 찾아가 경찰서 안으로 휘발유가 든 1.8ℓ 페트병을 던졌다가 택시 기사 신고로 붙잡혔다.

양씨는 경찰에서 “술자리를 하던 중 노조 간부들이 구속됐다는 소식을 듣고 순간 화가 나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사 던졌을 뿐 불을 지르려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건설노조는 이날 광주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자들과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건설사에 대한 수사 대신,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해 활동하는 노동단체에 대해서만 강경 방침을 취하는 검찰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김형호기자 khh@

또 택시요금 안내고 도망...50대 상습범 구속영장



○...택시요금을 내지 않고 도망간 죄로 두 차례에 걸쳐 즉결심판을 받은 50대 남성이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가 구속될 처지.

○...10일 광주북부경찰에 따르면 이모(57)씨는 지난 8일 오후 2시20분께 광주시 남구 월산동에서 김모(45)씨의 택시를 탄 뒤 북구 두암동 모 편의점 앞길에서 요

금 6000원 주지 않고 달아난 혐의.

○...이씨는 편의점 주변에 설치된 CCTV 화면 때문에 경찰에 탐미를 잡혔는데, 담당 경찰은 “(이씨가) 같은 범행을 저질렀을 땐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경고장을 아홉 차례나 받고도 또다시 범행에 나선 점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

/이종행기자 galee@kwangju.co.kr

새로운 역사가 펼쳐지는 나주혁신도시로 오세요!

한빛타워 ----- 분양/임대



- 혁신도시를 대표하는 초대형 빌딩
- 핵심상권에 위치 고객 흡입력 우수
- 인접상가에 비해 분양가 저렴
- 신탁회사 자금관리로 수 분양자 보호

• 시행사 | 한빛가람(유) • 시공사 | 한해종합건설(주) • 신탁사 | 아시아신탁(주)

프라임타워 ----- 분양/임대



- 유흥 밀집지역에 위치 유동인구 접근성 우수
- 높은 층고로 인한 업종의 다양화 실현
- 후면건물 모델 신축으로 위락시설 시너지 효과 창출
- 신용등급 높은 대형건설사 책임시공

• 시행사 | (주)프라임글로벌, (주)프라임개발 • 시공사 | (주)탑인프라 • 신탁사 | 아시아신탁(주)

다성드림메디컬타워 --- 임대



- 위치·가격·품질 넘버원!
- 상가오피스텔 밀집지역으로 쇼핑 및 휴식거리 형성
- 인접상가에 비해 임대가 저렴
- 높은 전용률 극대화로 임차인 이익 실현

• 시행사 | (유)다성 • 시공사 | 남도건설(주)

분양·임대문의 (061)333-7077 / 010-5587-3080

혁신도시의 모든 것 상담환영

주식회사 오 늘
나주솔로몬 공인중개사